



buddhanews.com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광대한 정수 안에 들어 있어요

A27면에서 계속

한 종자니까 어머니는 살아생전처럼 지켜 주실 거고 아버지는 채찍질을 해서 나를 길러 주실 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들어가신 부모님과 같이 먹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이상, 각자 내가 있는 이상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에 부모님과 같이 먹는 것이 어떻게 따로 떨어져서 먹습니까? 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가 자기 종자를 뿌려 놓고서 성장이 되면 바로 자기 껍데기는 껍데기로 변해서 가지지만, 그건 바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된 겁니다. 그게 돌이 아닙니다. 사시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조상의 뜻이나 하고, 잘못되면 원망이나 하고 이럴 분들의 소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인은 지혜롭고, 소인은 소견이 아주 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교과 이들을 갖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진리에 응(應)해서 나왔으니 내가 사는 게 그대로 종교예요. 이 종교를 어떻게 굴리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느냐, 공색하게 사느냐,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렵게 살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생일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일이 돌아오면 저는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왜냐? 내가 거듭 거듭 태어날 땐 부모가 돼 주고, 또 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자식이 돼 주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바뀌어 가지고 자꾸 자꾸 돌아가니까 부모를 헤아릴 수도 없고 자식을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부모의 배를 아프게 했으니, 하하하... 그런데 내가 자식이 됐다가, 또 그 부모가 자식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됐다면 역시 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에서 제 자리를 밟고 가는 거죠.

항상 갖고 넘어가고 갖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마음의 정수에 입력된 대묘죠. 보통 컴퓨터는 입력을 해 넣어야만 나오는 거지마는, 인간의 정수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 마음이 화(化)하고 나투어서 그 횡단을 이르고 있죠. 인간의 두뇌의 정수는 횡단을 넘어선 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죠. 제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정신을 빼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다면 정수를 빼 가는 거지, 정신을 빼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수를 빼 가는 것은 빼 가는 사이가 없이 빼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고, 지해가 없을 뿐이지, 그런 문제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빼 가는 줄도 모르게 뺏기고 뺏고 이렇게

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우스꽝스러운 소리 한다 이리시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병에 대해서도, 어디서 온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니까 항상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타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자의를 믿어서, 반드시 그 정수에서 천차만별의 광대한 문제를 다 타개하라 이런 소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잘살게 해 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나 하면서 여기에 다니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등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계에서 광대한 정수를 가진 생명은 사람들밖에 없죠. 상세계 차원으로 오르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중세계에서 맴도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나 하고, 절이나 하고 그러는 게 절에 다니는 신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 불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할

공해서 고정됨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고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바람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수도 없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외계에서 우리 정수를 빼 간다거나 정자를 빼 간다거나, 그래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거나 그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착잡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계를 따져 본대도 소국은 항상 강대국에게 끌려가면서 같이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 마음을 과학자들한테 투입을 해서 그 과학자들이 잘 연구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진짜 보시고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보람입니다.

그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당이나 저기 요사채, 그런 것이 지은 지가 오래 돼서 갈라지고 썩어 내려가면 그런 헛고 다시 지어야죠. 그렇죠? 지구라고 해서 수명이 아주 영원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마음 안에서 나가야 할 문제인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광대한 정

수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를 에너지니 무슨 에너지니 무슨 에너지니 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우리 차원이 높아야 보이지 않는 그 광대한 허공의 에너지를 꺼내 쓸 수가 있는 그런 도리가 생기지, 차원이 낮은 사람들끼리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꺼내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더 눈을 크게 뜨고 내다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억겁을 살아 내려오면서 눈물겹도록 아팠고, 눈물겹도록 먹혔고, 눈물겹도록 짓밟혔는데 어떻게 더 겪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거지 아니라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내가 일으키고 있다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겁니다. 일체 만물 만생의 마음도 다 알겠죠. 저런 나무들도요, 들판의 돌도요.

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알고 있느냐 내가 구더기가 돼도 상관이고 고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냥 애를 쓰고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떤 땐 하늘을 쳐다보곤 합니다. 누가 '스님, 어디 바람 쐬어유가 있다.' 합니다. '해도 "어휴, 내가 바람 쐬어유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못나서 그렇겠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바람 쐬고 웃고 지낼 수 있겠지만, 난 못나서 그런지 그렇게 좋아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왜냐? 공해서 고정됨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니까 고는 없다, 이겁니다. 순간순간 바람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괜히 마음으로 짐작하고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더기가 돼도 나는 고가 아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무슨 고가 됩니까, 그게. 깔깔 웃고서, '아하!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지는구나! 그렇게 저도 겨울 내내 가지가 앙상한 채 내년 봄에 잎이 피고 꽃이 필 때를 기다리면서, 저렇게 잠을 성이 깨고 싶구나!' 하면서 씩씩레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것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인생살이에 있어서 너무도 깊은 즐거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질문 좀 받을까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데 알고 모르고 없이 하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열 사람이 배울 수도 있고, 모두가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니까요.

질문자(남):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심중회 소속으로 수원에서 조그마한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하고 이렇게 인연돼서 이 공부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해서, 제가 공부라고 할 것도 없지만 말씀도 좀 드리고 평소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큰스님을 만나기 한 2-3년 전, 우연한 기회에 불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10년 전부터 당뇨병이 생겼고, 또 집안에 분란도 많았고, 또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데도 수술을 하거나 하면 환자들이 아주 상태가 나빠져서 어떤 경우에는 칼을 대기가 겁날 정도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

억겁을 살아 내려오면서
눈물겹도록 아팠고
눈물겹도록 짓밟혔는데
어떻게 더
겪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삶에 대한 회의가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처님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지가 한 7-8년이 되는데 그때 저 혼자 경전을 구해서 읽고 여러 가지 불교 해설서를 읽고 나름대로 한 2년 동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아주 엄청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도 불법을 펴는 스님이나 법사가 되었으면 좋을 것'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조금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처님 세계나 불법이 다 참 좋고 가슴에 와 닿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슴에 큰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대승 삼보 경전,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봤지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건가를 직접적으로 알려 주는 것도 없었고, 또 그때까지 통념적으로 나와 있던 게 참선이라든지 염불이라든지 간경(看經)인데 이런 거는 제 생각에 항상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에 사는 저의 작은 누님하고 인연이 돼서 91년 1월에 처음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견하고 스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동과 환희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말로 적힌 경전을 다시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걸 다시 일본 사람을 통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 가지고 서너 단계 번역을 거친 이 난해한 내용을 스님께서 쉬운 우리말로 풀어 주시니까, 제가 그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였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때 엄청난 환희 속

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스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할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결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 자체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 병도 이제 다 나은 거지.' 하고는 아무런 수행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 가을에 우연히 밤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대개 이 무좀이라는 건 습기가 많은 여름에 생겼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좋아지는 건데, 11월경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깐 나도 이 무좀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좀이 낫게 되면 주사를 끊으려라고 작정을 하고 무좀과 투쟁을 몇 개월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1월에 제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차를 저희 집 근처에 뒀는데, 운전을 한 3m도 못하고 경찰에 걸려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저는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밤낮으로 차를 써야 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서 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참 재수가 더럽다고 투덜대고 있었는데, 2월이 되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막 싸워서 다 나가고 잘못하면 병원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일어나고 있는데 3월이 돼서는,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었는데 아기가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지 사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큰스님의 법력으로 그 아기가 다 완쾌가 돼서 지금껏 잘 살고 있습니다. 4월에는 자동차를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검사장에서 합격을 받고 나온 차가 나오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쓰고 마음고생도 좀 했죠.

그래서 그때 정신이 조금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주인공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깐, 주인공 자리에서 철퇴를 내려치나 보다.' 그래서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인슐린 주사 끊는 거를 5월에 그냥 단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사 끊는 걸로 공부를 시작했으니 이제 뭔가 잘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사 끊고 얼마 안 돼서 소파수술을 했는데, 제가 소파수술을 수천 명을 했습니단만 처음으로 제 실수로 환자 자궁을 뚫고 창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때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큰스님 법력에 기대서 그 환자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5월 5일 범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靑昊堂 兩翼 大禪師 제3주기 추모법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대승불교의 심오한 수행법인 불교금강영관을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무상이념을 실현하신 靑昊堂 兩翼大禪師께서 입적하신지 3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감은 空華일 뿐이지만 남기고 가신 그 향기가 생생하여 문도들의 마음은 큰스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추모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동참하셔서 법석에 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일시 2009년 5월 3일(음 4월 9일) 오전 11시
장소 범어사 청련암
문의 청련암 종무소 (051)508-5164

- 상좌 : 정경, 고봉, 의정, 정산, 대일, 무구, 철암, 법찬, 목종, 서현, 강하, 월도, 안도, 응현, 탄욱, 광원, 송음, 구도, 가영, 행언, 훈암, 의신, 도관, 유신, 영우, 혜현,
- 법상좌 : 인걸, 무착, 법성, 원우, 원욱, 지문, 성혜, 명궁, 광탄, 보일, 대암, 석호, 적운, 원명, 적연, 각현, 각명, 임하, 관일, 추암(이경재)

범어사 청련암 청호당 양익 문도회 일동

